

# 이사회 개혁 통해 투명성 강화, 인재확보로 경쟁력 다져

## 정의선 혁신 리더십

### 〈中〉 광폭경영 행보

현대차, 사외이사 주주추천제 도입 모비스, 3년간 2.7조 주주환원 시행 순환주의 타파, 글로벌 인재 영입

최근 광폭 경영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수석부회장이 그룹의 핵심 계열사의 기아차와 현대제철 사내이사에 이어 현대차와 현대모비스 대표이사를 맡아 경영 전면에 나섰다. 정 수석 부회장이 실질적인 그룹의 지휘봉을 잡은 뒤부터 회사의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현대차그룹의 글로벌 경영환경은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지만 미래를 향한 정 수석부회장의 발걸음은 빠르지만 결코 가볍지 않다.

3일 재계에 따르면 정의선 현대차그룹 수석부회장이 이끌고 있는 현대차그룹의 핵심 계열사는 주주사회이사 도입을 통한 투명성 확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특히 앞으로 현대차는 사외이사 주주



정의선 현대차그룹 수석부회장.

추천제를 도입한다. 주주권익담당 사외이사를 일반주주들이 추천한 인사로 선임하는 방식이다.

현대차는 지난 1월 주주들을 대상으로 주주권익담당 사외이사 선임을 위한 예비 후보를 추천받았다. 독립적인 외부인사로 구성된 외부평가자문단의 자문을 거쳐 윤치원 UBS그룹 자산관리부문 부회장을 사외이사 후보로 확정했다.

윤 부회장은 이번달 22일 주주총회에서 사외이사로 선임되면 주주권익 담당 이사로서 이사회와 주주 간 소통 창구역

할을 한다. 투명경영위원회와 이사회에 참석해 주주들의 의견을 대변하고, 국내외 투자자 간담회에 참여한다.

현대모비스의 경우 앞으로 3년간 2조 6000억원 규모의 주주환원을 시행하겠다고 발표했다. 배당 규모를 확대하고 자사주를 추가 매입하는 동시에 보유한 자사주를 소각하는 방식이다. 주당 배당금은 지난해 3500원에서 4000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배당총액은 3788억원으로 지난해 잉여현금흐름의 25% 수준이다. 3년간 예상 배당금 규모는 1조1000억원이다.

현대모비스는 또 3년간 1조원 규모의 자사주를 매입하기로 했다. 지난해 상반기에 2021년까지 총 1875억원어치를 매입하겠다고 발표한 것과 비교하면 다섯 배 넘게 확대된 규모다. 올 하반기에는 204만 주(약 4600억원)의 자사주를 소각할 계획이다.

또한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정 수석 부회장은 과거와 달리 순환주의를 타파한 인재 확보를 진행하고 있다.

정 수석부회장은 지난해 연말 인사들 통해 정몽구 회장과 함께 현대차그룹을 이끌었던 '올드보이'와 작별했다. 반면 젊은 감각과 글로벌 인재를 적극 영입했다.

기존에 정 수석부회장을 포함한 7인의 부회장 체제였던 현대차그룹은 6인의 부회장 체제로 교체했다. 기존 부회장단은 계열사로 이동하거나 고문으로 물러났다. 특히 그동안 정몽구 회장의 곁에서 현대차의 연구개발(R&D)을 이끌던 양승철·권문식 부회장과 생산품질담당 여승동 사장까지 한꺼번에 물러나면서 BMW 출신의 독일인 알버트 비어만 사장이 자리를 메우게 됐다.

외국인 사장뿐만 아니라 2016년 삼성 전자에서 현대차로 영입된 전략기술본부

장 지영조 부사장은 2년 만에 사장으로 승진했다.

지 사장은 현대차그룹이 자동차 제조업체에서 모빌리티 서비스업으로 방향을 전환하는 데 키를 쥐고 있는 인물이다. 스마트시티, 모빌리티, 카셰어링, 로봇, 인공지능(AI) 등 각종 신규 사업과 전략 투자를 맡고 있다.

현대차그룹은 지난해 9월 정 수석부회장의 승진 이후 '순환주의 타파' 의지를 지속적으로 피력해 왔다. 외부와 협업을 늘리고 인재를 꾸준히 영입하면서 현대차그룹 외연을 넓히겠다는 의도였다.

또한 세대교체를 단행하면서 대부분 50대 인사로 구성하며 회사 경영진의 젊은 바람도 불고 있다. 신임 현대로템 대표 이사에 내정된 이근용 부사장을 비롯해 현대다이모스-현대파워텍 합병 법인의 여수동 사장, 신임 현대오토론 문대홍 사장, 현대캐피코의 방창섭 신임 대표이사 내정자 등은 모두 50대다.

정의선 수석부회장은 올해 신년사에서 "투명하고 신속한 의사결정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이사회의 다양성, 전문성, 독립성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양성준 기자 ysw@metroseoul.co.kr



현대건설기계, 미국 업체와 굴삭기 원격진단서비스 상용화 현대건설기계는 최근 미국 인디애나주 커민스 본사에서 '엔진 원격 고장진단서비스 상호 협력 계약'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현대건설기계는 이번 달부터 이 기술이 탑재된 굴삭기 양산에 돌입하는 한편, 오는 4월 8일부터 독일 뮌헨에서 열리는 세계적 건설장비전시회인 '바우마(BAUMA) 2019'에서도 이 기술을 소개할 계획이다. 김대순 현대건설기계 부사장(왼쪽 세번째)과 스티판드 파드마나한 커민스 사장(왼쪽 두번째)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현대건설기계

## SK·삼성·LG, 유럽 배터리공장 공격 투자

SK이노베이션, 삼성SDI  
헝가리 공장 증설투자 단행  
LG화학, 폴란드 공장 증설

전기자동차 시장이 전 세계적으로 커지는 가운데 전기차 배터리를 생산하는 국내 기업들이 유럽 시장을 상대로 규모 있는 투자에 나섰다.

3일 배터리업계에 따르면 최근 SK이노베이션, 삼성SDI가 유럽의 전기차 배터리 생산기지인 헝가리에 추가 투자를 결의했다. 헝가리 공장은 BMW, 폭스바겐 등 유럽의 주요 고객사들에 전기차 배터리를 생산하는 전진기지로 꼽힌다. 또 LG화학은 유럽 전기차 시장에 대응하고자 폴란드에 배터리 공장을 세우고 지난해 1분기부터 가동을 시작했다.

최근 SK이노베이션은 유럽에 제2 전기차 배터리 공장 건설을 위해 총 9452억원의 투자를 결의했다. 이번 추가 투자를 결정한 제2 공장은 현재 제1 공장을 건설 중인 헝가리 코마롬(Komarom)시에 위치한 건설부지 내에 연면적 약 3만5000평

규모로 건설된다. SK이노베이션이 최초 헝가리 배터리 공장 건설을 위해 코마롬시 현지에 확보한 축주장 약 60개 크기의 부지 43만㎡(약 13만 평) 중 일부를 활용하는 것이다.

앞서 SK이노베이션은 지난해 초에 코마롬시에 7.5GWh 규모의 제1 공장 건설을 시작, 오는 2020년 상반기부터 배터리 양산을 예정하고 있다. 제2 공장은 이달 착공을 시작해 2020년 상반기에 설비 안정화 및 시운전, 제품 인증 등 과정을 거치고 2022년 초부터 본격적으로 양산하는 것이 목표다.

SK이노베이션 관계자는 "유럽 자동차 산업은 세계 자동차 시장을 전기차 중심으로 전환하는데 앞장서고 있다"며 "급성장하고 있는 유럽 전기차 시장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시장 내 입지를 강화해 점진성부를 하고자 이번 투자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실제 SK이노베이션은 유럽에서 현재 건설 중인 공장의 두 배 이상의 생산능력을 확보하게 된다.

삼성SDI도 헝가리 공장에 추가 투자를 단행한다. 앞서 삼성SDI는 약 4000억

원을 들여 헝가리에 배터리 공장을 건설, 지난해부터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이번에 투입되는 추가 투자금은 약 5600억원이다. 전기차용 생산라인 3~4개를 추가로 짓을 수 있는 수준이다.

삼성SDI의 헝가리 공장은 지난 2016년 헝가리 수도 부다페스트 근처 괴드 지역에 착공, 지난해 하반기부터 본격 가동되기 시작했다. 전기차용 배터리팩을 이루는 셀과 모듈을 전문적으로 생산하며 연간 생산규모는 순수 전기차(EV) 5만대 수준으로 알려졌다.

삼성SDI 관계자는 "헝가리 전기차 배터리 시장이 계속 성장함에 따라 시장 대응 차원에서 증설투자를 단행한 것"이라며 "체적인 생산라인에 대한 숫자는 밝히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자동차 배터리 선두기업 LG화학은 2017년에 폴란드에 6GWh 규모 전기차 배터리 공장을 짓고 지난해부터 양산에 들어갔다. 지난해말에는 폴란드 공장의 생산 능력을 15GWh수준까지 확대하기 위해 6513억원을 현금 출자하기도 했다. /김유진 기자 ujin632@

## SM6 구매하면 최대 268만원 '통큰할인'

르노삼성, 3월 신차구매 혜택

내수 시장 부진과 노사 갈등으로 창사 후 최대 위기를 맞은 르노삼성자동차가 파격 할인을 통한 판매 확대에 나선다.

3일 르노삼성에 따르면 봄 시즌 시작을 맞아 3월 한달 간 신차 구매 혜택을 제공한다.

SM6를 구매할 경우 최대 268만원 할인받을 수 있다. QM6 디젤 및 SM6 가솔린 3개 트림(GDe LE/RE, 프라임) 구매 고객들을 위해 3월 한정 150만원의 특별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여기에 '스페셜 프로모션'을 통해 QM6와 SM6 고객은 각각 현금 70만원, 80만원 지원 또는 S-링크 패키지 무상장착 중 한가지를 선택할 수 있다. 또 QM6 고객이 S-링크 패키지와 매직 테일게이트를 함께 선택할 경우 추가 무상장착(GDe RE 트림 제외) 혜택을 제공한다.

QM3 고객을 위한 특별 혜택도 마련됐다. '비비드 스프링 프로모션'을 통해 100만원의 현금 지원 혜택과 함께 QM3 전용 태블릿 내비게이션 'T2C'를 무상 제공한다. 이와 함께 봄 시즌을 맞아 르노삼성 S



르노삼성 QM6, SM6.

M3, SM5, SM7을 현금 또는 할부 구입할 경우 현금 30만원을 제공한다. 아울러 SM5 택시 트림의 경우 20만원의 특별 할인 혜택이 추가된다.

또 전 차종(QM6, 전기차, 마스터 제외)을 대상으로 36개월 할부 구입 시 1.99%의 낮은 금리를 제공한다. SM6는 36개월 할부 원금과 기간을 고객의 형편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맞춤형 무이자 할부 상품 '마이웨이'도 이용할 수 있다.

특히 QM3, 클리오 구매 고객에게는 일반 할부의 경우 0%(36개월)의 파격적인 금리가 적용되며, 아울러 QM3 LE 트림 한정 100만원 인조 가죽 시트커버 무상 또는 천연가죽 시트커버 할인을 선착순으로 제공한다. /양성준 기자

## LG전자 케어솔루션, 렌탈 최초 'ISO 10002 인증' 획득

체계적 고객만족경영시스템 인정

LG전자 케어솔루션이 렌탈 업계 최초로 '고객만족경영시스템(ISO 10002) 인증'을 획득했다.

LG전자는 자회사인 하이-엠플루텍이 최근 국제표준인증전문기관인 한국경영인증원으로부터 ISO 10002를 받았다고 3일 밝혔다.

엠플루텍은 LG전자의 서비스와 유지 보수 자회사다. ISO 10002는 고객 요구에 체계적이고 신뢰성있게 응대하는 우수 기업이나 기관임을 인정하는 국제 인증



LG전자 케어솔루션은 업계 최초로 고객만족경영시스템 인증을 획득했다. /LG전자

제도다. 고객 요구를 해결하고 관리 및 모니터링이 가능한지를 심사한다.

케어솔루션은 렌탈서비스 업계 최초로 ISO 10002 자격을 얻었다. 체계적인 고객만족경영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해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을 입증했다.

케어솔루션은 지난 해 11월 론칭한 서비스다. 케어솔루션 매니저가 정기적으로 핵심 부품을 교체하고, 보이지 않는 곳까지 위생을 관리해준다. 렌탈서비스와 유지관리케어업을 통합했다. 대상 제품은 공기청정기와 정수기, 건조기, 전기레인지, 스타일러, 안마의자, 얼음정수기냉장고 등 생활가전 7종이다. /김재용 기자 juk@